부산 금정산에만 있는 '가는동자꽃' 멸종 위기 넘겼다

mobile.newsis.com/view.html

김민지 2023년 5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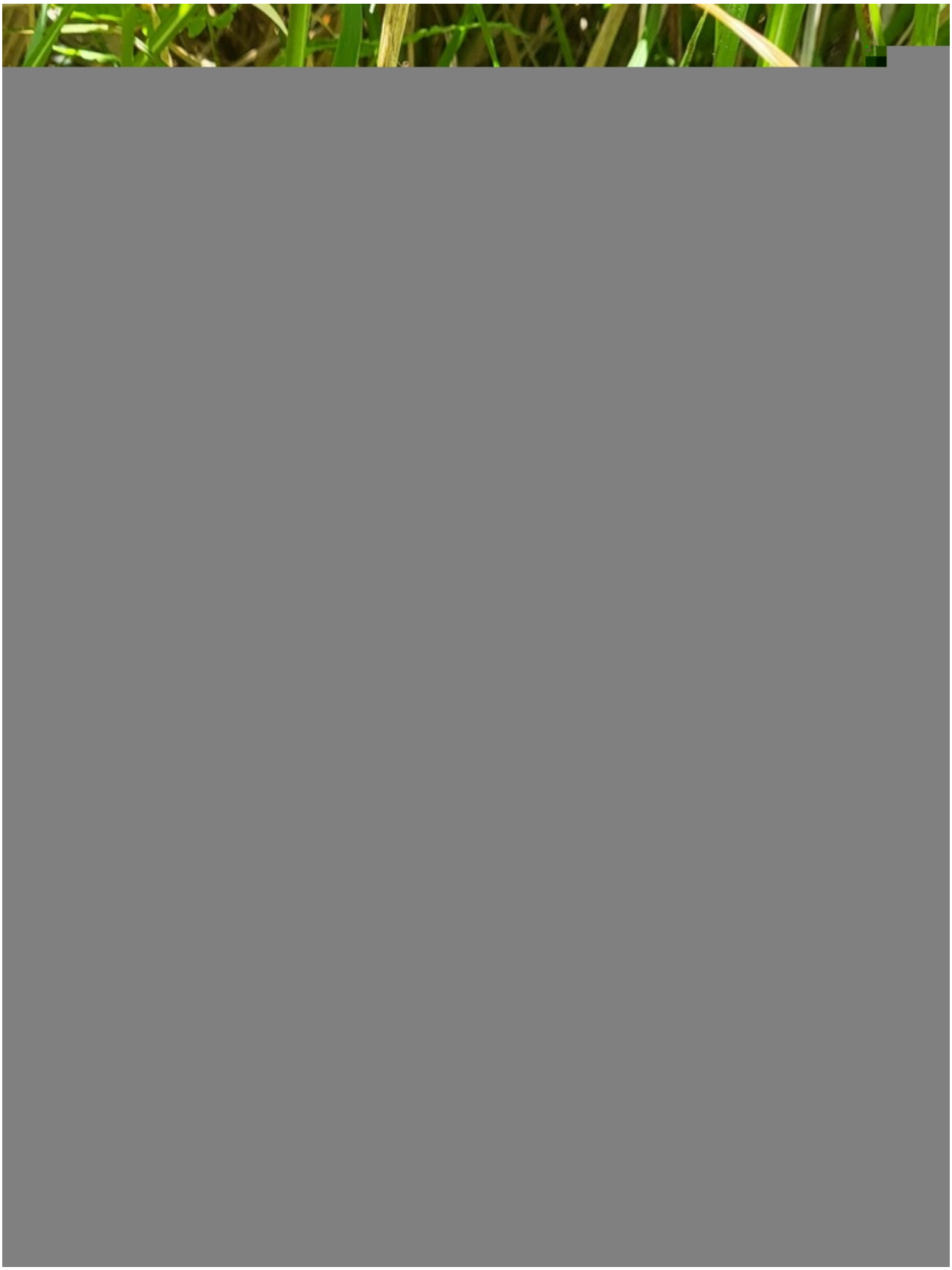
- 홈
- 사회

기사등록 2023/05/24 11:20:00

최종수정 2023/05/24 11:31:25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국립생태원 "인공증식 개체 확보, 자연적응 실험 중"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자생지인 금정산에서 피어난 가는동자꽃의 잎. 피침형이며 털이 있다. 2023.05.24.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금정산에서만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가는동자꽃'이 인공 증식에 성공, 자연 적응 실험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립생태원은 인공증식한 가는동자꽃 50여개채를 지난해 5월 자생지 인근에 시험 이식한 뒤 살아남은 절반의 성장을 관찰하고 있다.

가는동자꽃은 햇볕이 좋은 습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산 금정산에서만 자생하고 있고 그마저도 사는 곳 3곳 중 2곳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7년 가는동자꽃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다.

[부산=뉴시스] 국립생태원의 가는동자꽃 인공 증식 (왼쪽), 개화한 가는동자꽃. 가는동자꽃은 7~9월에 핀다. 국립생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생태원은 2020년 10월 부산시로부터 가는동자꽃 종자 100립 채취 허가를 받아 2021년 3월 인공 증식을 시작했다.

박환준 국립생태원 식물팀 전임연구원은 "실험실에서 종자의 발아를 거친 후 온실에서 발아된 개체를 키우면서 증식에 성공하는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자생지가 전국에 하나이고 보존하기 어려운 식물로 알려져 걱정을 했지만 인공 증식 실험을 해보니 성장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식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 말 개체 일부인 50여개를 자생지 인근에 시험 이식한 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응력을 살피고 있다.

박 연구원은 "1년 정도 지난 지금 살아 있는 개체 수는 절반 정도"라며 "다른 멸종위기 생물에 비하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했다.

"온도와 습도, 햇빛 등을 따져가며 가는동자꽃에 적합한 생육 환경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보유하고 있는 개체로 자생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시험 이식도 진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박 연구원은 "몇 년 간의 적응 실험을 잘 거친다면 자생지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는동자꽃 자생지를 처음 발견한 김합수 민간생태연구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생지 답사를 나갔을 때 자생지의 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 걱정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물의 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생지에서 확인되는 가는동자꽃의 개체 수도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가는 가는동자꽃의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는동자꽃의 특성상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생지 중 물이 쉽게 빠지는 곳은 덜 빠지게끔 해주고 나무 가지치기 등으로 그늘을 없애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전에는 자생지를 훼손하는 등산객들, 가는동자꽃을 꺾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훼손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자연에서의 보존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와 국립생태원은 2019년부터 자생지 근처에 출입 차단 로프, 표지판 등을 설치해 가는동자꽃을 보전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기사등록 2023/05/24 11:20:00 최초수정 2023/05/24 11:31:25